

치 사

올해는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은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겪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파괴된 생존의 터전 위에서 오랫동안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상흔이 치유되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이산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전쟁의 공포는 아직도 우리 민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더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립과 대결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립구도를 청산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찾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를 모으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며, 우리 불교도입니다. 자비의 종교인 불교는 생명과 평화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안락과 평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숫타니파타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고, 이웃나라를 정복하려던 마가다 국왕에게 부처님께서서는 ‘죽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이기지 않고, 적에게 이기도록 하지도 않으며, 슬프게 하지 않고, 법답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런 생명과 평화의 가르침을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6.25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일에 불교도들이 앞장서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이자,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민족을 계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위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자들의 이와 같은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완전히 끝낸 종전(終戰)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합의에 의해 일

시적으로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정전(停戰) 상태입니다. 이제 60년 동안 이어져온 긴장과 대결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포교원과 범어사에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6.25 한국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 지역의 범어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에 앞장서게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경색된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이 땅에 불은(佛恩)이 가득하여 항구적인 평화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2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